보도자료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도 희망 일시	2024. 8. 7.(수) / 배포 즉시
문의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 / 인공지능신뢰성연구센터
	배수정 880-4259 sunny11s@snu.ac.kr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연구센터(CTAI), AI 표준 정립을 위한 협력 연구기관으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기술, 혁신 및 경쟁 센터(CTIC) 선정

美 유펜의 CTIC에서 자율주행자동차 • 보건의료 • 형사집행 관련

AI 표준에 대해 주도적으로 연구수행 예정

실천가능한 AI 표준 수립을 목표로 다년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연구센터(SNU Center for Trustworthy AI, 'CTAI')는 8월 7일(수)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기술, 혁신 및 경쟁 센터(Center for Technology, Innovation & Competition, "CTIC")를 해외 협력 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정 결과는 2024년 8월 12일(월)과 13일(화), 양일간 진행될 Seoul AI Policy Conference 2024의 개최에 맞춰 발표됐다.

CTAI는 2022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컨텍스트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AI 표준 설계'를 목표로 실제 개발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량적 지표로 변환할 수 있는 실용적인 표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CTIC는 자율주행자동차, 보건의료, 형사집행 등 세 가지 분야에서 AI 표준화 원칙에 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CTAI와 협력하기로 했다.

CTAI 센터장인 이은주 교수(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AI 표준은 국내외적으로 AI의 발전 및 AI 거버넌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라며, "사회적·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와 표준을 만드는 데 CTIC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협력 연구에 참여하는 CTIC의 연구진은 유펜 로스쿨(Penn Carey Law)의 법과 기술 교수이자 CTIC의 창립 디렉터인 크리스토퍼 유(Christopher Yoo) 교수가 이끌고 있다. 유 교수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과 미국 연구자들이 AI 거버넌

스와 국가 간 표준 수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CTIC측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는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브라이언 최(Bryan H. Choi) 교수가, 보건의료 분야는 미시간 대학교 니콜슨 프라이스(Nicholson Price) 교수가, 형사집행 분야는 UC 버클리 레베카 웩슬러(Rebecca Wexler) 교수가 초기 연구를 주도하기로 했다. CTIC의 학술 디렉터이자 선임 연구원인 거스 허위츠(Gus Hurwitz)는 AI 표준화 원칙 관련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CTAI에서 이들과의 협업은 서울대 로스쿨 임 용 교수가 주도하고 있다. 위 연구진들은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NU AI Policy Initiative, SAPI)가 CTAI와 8월 12일과 13일 서울 페럼홀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Seoul AI Policy Conference 2024에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컨퍼런스에서는 학계,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연사들이 AI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동향, AI와 시장 독점의 문제, AI에 대한 인권 기반의 접근, AI와 프라이버시 보호, AI와 저작권 보호의 문제 등 AI 거버넌스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CTAI의 연구과제는 2024년 1단계(모듈식 접근 방식 및 기본 프레임워크 정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단계(특정 분야별 모듈식 접근 방식 적용 및 테스트), 2026년부터 2027년까지 3단계(2단계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결과물 작성) 등 총 세 단계로 진행된다. CTAI는 이번 글로벌 연구 협력을 통해 세부 분야에서 구체적인 이용 사례와 관련된 사회적 위해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기준 수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아래에서 CTAI 및 CTIC 소개, Seoul AI Policy Conference 2024 정보 및 일정에 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인공지능신뢰성연구센터(CTAI) - https://ctai.snu.ac.kr/ko/
- 기술, 혁신 및 경쟁 센터(CTIC) - www.pennCTIC.org
- Seoul AI Policy Conference 2024 정보 및 일정- www.saipcon.com

붙임: 1. 주요 인물 소개

-

붙임	주요 인물 소개

이은주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연구센터(CTAI) 센터장

이은주 교수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은주 교수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기계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과정과 효과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저널리즘과 소셜 챗봇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AI 생성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은주 교수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주요 학술지인 Human Communication Research의 편집위원장(2017-2020)을 역임했다. 또한,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CA) 석학회원(Fellow)으로서 전임 회장을 역임했다.

크리스토퍼유 Christopher S. Yoo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기술, 혁신 및 경쟁 센터(CTIC) 창립 디렉터

크리스토퍼 유 교수는 미국 펜실베니아 케리(Carey) 로스쿨에서 법과 기술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유 교수는 행정 및 규제법,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 중 한 명이다. 주요 연구 프로젝트로는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는 반독점법 분석, 더 많은 사람들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혁신적 방법에 관한 실증 연구, 법이 최적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원칙의 활용, 인터넷 라우팅 설계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증진 방법, 저작권 이론과 네트워크 중립성 연구 등이 포함된다. 115편의 학문적 글을 저술한 유 교수는 미 의회,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미 연방거래 위원회(FTC), 미 법무부(DOJ), 외국 정부 및 국제 기구 등 다양한 기관에서 증언하기도 하였다. 유 교수는 유엔 및 기타 국제 기구에 의하여 디지털 액세스, 경제 문제 및 경쟁 개발에 관한 세션의 조사 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임용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 디렉터

임용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2020년까지 학생부원장을 역임했다. 임용 교수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의 공동 창립자이자 디렉터이다. SAPI는 현재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연구센터(CTAI)가 진행하고 있는 AI의 규범적 및 기술적 표준을 수립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연구실 중 하나이다. 임용 교수의 전문 분야는 경쟁법,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이다. 임용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박사(S.J.D.)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에 부임하기 전에는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하였으며, 2023년에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케리(Carey) 로스쿨의 Bok 국제 교수(Bok International Professor)로 재직했다.

저스틴거스허위츠 Justin (Gus) Hurwitz

미국 펜실베니아 기술, 혁신 및 경쟁 센터(CTIC) 선임연구원 및 학술 디렉터

저스틴 허위츠는 법학, 경제학, 컴퓨터과학을 기반으로 기술이 경제적 및 사회적 제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관하여 연구한다. 허위츠는 특히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을 포함하는 통신법 및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The National Law Journal에서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선구자(Cyber Security & Data Privacy Trailblaze)로 인정받았다. 허위츠의 연구는 미국 전역의 다양한 법률 리뷰와 저널에 게재되었으며,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미 연방거래 위원회(FTC), 미 연방 지방법원 및 순회법원 판사들에 의해 인용되기도 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츠는 CTIC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2023년에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돌아오기 전에는 네브래스카 대학교 정교수 및 거버넌스 및 기술 센터(Governance & Technology Center)의 창립 디렉터로 재직했다.

브라이언최Bryan H. Choi

브라이언 최 교수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모리츠(Moritz) 법과대학 및 컴퓨터 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 교수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책임 체계 구축의 난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허법, 지식재산권, 사이버스페이스 법, 불법행위법을 가르치고 있다. 최 교수의 연구는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Washington Law Review, Texas Law Review Online 등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2021년에는 안전이 중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적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책임성 관련 최신 기술을 법적으로 포섭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 관한 학제간 연구 수행을 위하여 미 국가과학재단(NSF)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았다.

니콜슨프라이스Nicholson Price

니콜슨 프라이스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프라이스 교수는 법이 바이오메디컬 혁신, 특히 의료AI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프라이스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본인의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Nature, Science, JAMA, Stanford Law Review, Columbia Law Review 등 다양한 학술지와 책에 게재된 70편 이상의 글을 저술했다. 프라이스 교수는 특허법, 보건법, 생명과학 혁신, AI와 법, 그리고 공상과학과 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프라이스 교수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생명 의료 혁신 법 연구 센터(Center for Advanced Studies in Biomedical Innovation Law)의 선임 연구원이자, 미국 하버드 로스쿨의 페트리-플롬 센터(Petrie-Flom Center)가 수행하고 있는“Precision Medicin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aw”프로젝트의 연구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레베카웩슬러Rebecca Wexler

레베카 웩슬러는 미국UC 버클리 로스쿨의 조교수이자 버클리 법과 기술 센터(Berkeley Center for Law and Technology)의 공동 디렉터이다. 웩슬러 교수는 형사 법제도 관련 데이터, 기술, 기밀성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강의하고 있다. 웩슬러 교수는 2023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서 선임 정책 고문으로 근무했으며,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증언하기도 하였다. 웩슬러 교수의 연구는 Harvard Law Review, Stanford Law Review, Yale Law Journal Forum, NYU Law Review, Michigan Law Review, UCLA Law Review, Texas Law Review, Vanderbilt Law Review,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을 비롯하여 다수의 컴퓨터 과학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예정이다.